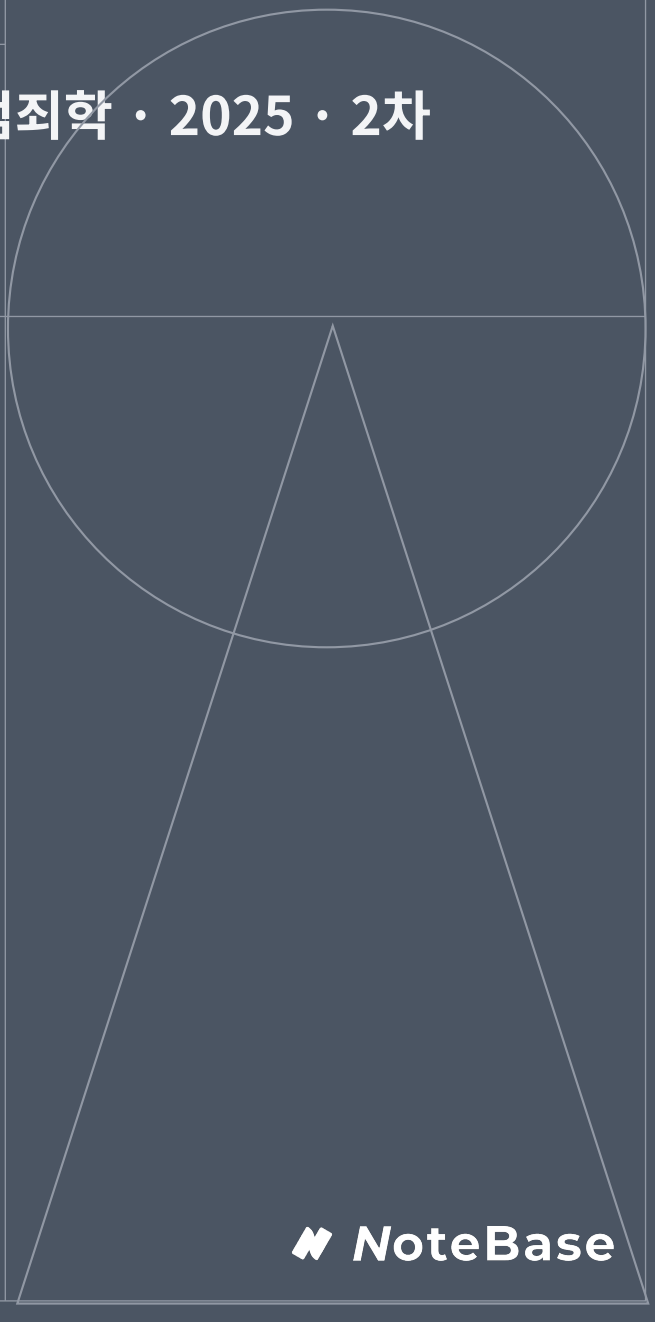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범죄학 · 2025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범죄학 · 2025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범죄학 · 2025 · 2차

문 1. 범죄학 연구대상으로서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법령 위반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한다.

② 상대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서 살인·강간이 대표적인 예이다.

③ 범죄학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포섭하지 아니한다.

④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는 특정 사회의 경향성과 병리현상을 반영하므로 교정정책 및 보안처분의 주요 대상이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범죄를 형식적·실질적 의미, 절대적·상대적 의미, 개인현상·집단현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사법령이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률상 범죄인지와 별개로 사회에 유해하거나 반사회적인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절대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와 사회를 넘어 보편적으로 비난·금지되는 행위이고, 상대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사회·문화에 따라 범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행위이다.
개인현상으로서의 범죄는 개별 범죄자의 행위와 원인을,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는 일정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규모·분포·추세와 사회적 원인을 중심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형사법령이 금지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상대적 의미의 범죄'이다.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금지되고 살인·강간이 대표적인 행위는 절대적 의미의 범죄이다. 상대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범죄로 평가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포섭하지 아니한다'이다. 범죄학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 아니라 사회유해성·반사회성을 지닌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연구대상으로 포섭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를 '교정정책 및 보안처분의 주요 대상'이라고 한 부분이다.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는 특정 사회의 범죄 경향과 병리현상을 반영하므로 범죄의 사회적 원인 분석과 일반적인 예방·형사정책의 대상이 된다. 교정정책과 보안처분은 주로 개별 범죄자라는 개인현상에 대응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절대적 범죄의 설명에 '상대적'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④는 집단현상의 특징 뒤에 개인 범죄자에 대한 처우 수단인 교정정책·보안처분을 연결했다. 개념의 설명은 맞아 보여도 명칭이나 정책 대상이 뒤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이 정한 범죄인지는 형식적 의미, 사회적 유해성까지 보는지는 실질적 의미로 구분한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면 절대적 의미,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면 상대적 의미로 판단한다. 통계적 추세와 사회적 원인은 집단현상, 개별 범죄자의 교정·처우는 개인현상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법에 있으면 형식적, 사회에 해로우면 실질적, 보편적 금지는 절대적, 시대마다 달라지면 상대적이다. 집단은 추세·예방정책, 개인은 교정·처우이다.

NoteBase

문 2.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는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도 포함한다.

② 범죄신고에 따른 불편과 범죄자에 의한 보복의 두려움은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고소·고발 등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이다.

④ 암수범죄는 공식범죄통계보다는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또는 정보제공자조사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암수범죄의 범위와 절대적·상대적 암수범죄의 구별, 암수범죄가 생기는 이유 및 조사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공식범죄통계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범죄이다.
절대적 암수범죄는 신고 등이 없어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고,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했으나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해결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상대적 암수범죄가 되므로, 넓은 의미의 암수범죄에 포함된다.
② O. 신고 과정에서 겪는 시간·절차상의 불편과 범죄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가 공식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상대적 암수범죄'이다. 범죄가 발생했지만 신고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절대적 암수범죄이다.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했으나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이다.
④ O.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에 인지·기록된 범죄를 중심으로 작성되므로 숨은 범죄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는 당사자나 주변인의 응답을 통해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를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수사기관이 인지했는가'를 기준으로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를 뒤바꾼 선지이다. 신고가 없어 수사기관이 모르면 절대적 암수범죄이고, 수사기관이 알았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상대적 암수범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사기관의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인지하지 못했으면 절대적 암수범죄, 인지했으나 미검거·미해결이면 상대적 암수범죄로 판단한다. 암수범죄의 규모를 묻는 경우에는 공식통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기보고조사·피해자조사·정보제공자조사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미인지=절대적 암수, 인지 후 미해결=상대적 암수이다.

NoteBase

문 3.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중세시대에는 범죄를 사탄, 미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② 베카리아(Beccaria)는 형벌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사람은 자유의지(free will)를 바탕으로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고 전제하였다.

④ 베카리아 등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처벌의 확실성을 강조하였으나, 이후 수행된 깁스(Gibbs), 포스트(Forst), 파셀(Passell)의 억제이론 연구 결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더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전주의 범죄학의 인간관과 형벌관을 베카리아의 주장 및 억제이론의 연구 결과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고전주의 범죄학: 인간을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의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합리적 존재로 보고, 형벌의 목적을 응보 그 자체보다 범죄 예방과 억제에서 찾는다.
베카리아: 범죄 억제를 위해 형벌은 확실하고 신속하며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잔혹한 형벌의 강화보다 형벌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는 확실성이 중요하다.
억제효과 연구: 연구 대상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일부 연구의 제한적 결과를 근거로 처벌의 확실성에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전주의 이전에는 범죄를 악마나 사탄의 작용, 미신 등 초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고전주의는 이러한 설명에서 벗어나 인간의 합리적 선택과 형벌제도를 중심으로 범죄를 설명하였다.
② O —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만 두지 않고,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두었다.
③ O — 고전주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며, 범죄로 얻는 이익과 처벌 등 예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한 뒤 행동을 선택한다고 전제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더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이다. 깁스의 연구 등에서는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율 사이의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고, 후속 연구의 결과와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관련 연구 결과를 모두 무효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올바르게는 처벌의 확실성이 억제효과와 관련될 수 있지만 그 효과의 크기와 인과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는 후속 실증연구에서 억제효과에 대한 비판과 엇갈린 결과가 있었다는 점을 '효과가 전혀 없다'로 과장한다.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말과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주의 문항은 '자유의지·합리적 계산·범죄 억제·형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의 연결을 먼저 확인한다.
실증연구를 설명하는 선지에서는 '항상', '전혀', '모두'와 같은 절대적 표현이 실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와 합리적 계산, 베카리아는 응보보다 예방과 확실한 형벌이다.

문 4.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생물학적 범죄원인 연구의 개척자인 롬브로조(Lombroso)는 관찰, 검증 등 당시 자연과학계에서 활용되던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였다.
㉡ 덕데일(Dugdale)의 쥬크가(家) 연구, 고다드(Goddard)의 칼리카크가(家) 연구, 서덜랜드(Sutherland)의 에드워드가(家)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범죄성은 상관관계가 없다.
㉢ 뒤르껭(Durkheim)에 따르면 아노미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지지를 잃거나 집단의 가치나 목표에 대한 몰입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한다.
㉣ 가로팔로(Garofalo)는 도덕·연민의 결핍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의 주요 학자와 연구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연결하고, 뒤르껭의 자살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옳은 설명은 ㉠과 ㉣로 모두 2개이다.

핵심 정리

롬브로조: 관찰과 검증을 중시한 실증적 방법으로 범죄 원인을 연구한 생물학적 범죄학의 개척자이다.
가계 연구: 덕데일의 쥬크가, 고다드의 칼리카크가, 서덜랜드의 에드워드가 연구는 가계와 범죄성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뒤르껭: 사회적 통합이 약해 발생하는 것은 이기적 자살이고, 사회적 규제가 약해져 규범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것은 아노미적 자살이다.
가로팔로: 인간의 기본적인 이타적 감정인 연민과 정직·도덕 감정의 결핍을 범죄와 연결하였다.

NoteBase

판단항목별 해설

㉠ O — 롬브로조는 관찰·측정·검증 등 자연과학적 방법을 범죄 연구에 도입한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자이다.
㉡ X — 틀린 부분은 '부모와 자녀의 범죄성은 상관관계가 없다'이다. 이 가계 연구들은 오히려 범죄성이나 일탈이 가계 내에서 이어진다는 관련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다만 후대에는 환경 요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X — 틀린 부분은 '아노미적 자살'이다. 제시된 설명은 사회적 통합 부족에서 생기는 이기적 자살에 해당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급격한 사회 변화 등으로 사회적 규제가 약화되고 규범이 붕괴할 때 발생한다.
㉣ O — 가로팔로는 자연범죄를 연민과 정직 등 기본적인 이타적·도덕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고, 이러한 도덕 감정의 결핍을 범죄와 연결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항목은 ㉠과 ㉣의 2개이므로 '1개'가 아니라 '2개'이다.
② O — 옳은 항목이 ㉠과 ㉣로 모두 2개이므로 정답이다.
③ X — 옳은 항목은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④ X — 옳은 항목은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은 유명한 가계 연구의 결론을 정반대로 바꾸었고, ㉢은 사회적 통합 부족을 아노미적 자살로 바꾸었다. 특히 뒤르껭의 '통합 부족=이기적 자살'과 '규제 부족=아노미적 자살'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을 대표 주장과 먼저 연결한다. 롬브로조는 생물학적 실증주의, 가계 연구는 범죄성의 가계 내 관련성, 뒤르껭은 통합과 규제의 구분, 가로팔로는 연민·정직의 도덕 감정으로 판단한다. 각 문장의 진위를 정한 뒤 O의 개수를 센다.

암기 포인트

롬브로조=관찰·실증, 가계 연구=범죄성의 가계 관련성, 뒤르껭=통합 부족은 이기적·규제 부족은 아노미적, 가로팔로=연민·정직의 도덕 감정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도덕수준과 추론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 관습적 수준 중 4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편적 윤리원칙을 인정한다.
㉢ 대부분의 비범죄자들은 도덕발달 6단계 중 3단계 또는 4단계에 속한다.
㉣ 개인의 도덕수준은 항상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서 인지적 추론능력과 도덕수준의 관계, 관습적 수준과 후인습적 수준의 구분, 비범죄자의 일반적 발달단계, 단계의 비퇴행성에 대한 비판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콜버그는 도덕적 판단이 인지적 추론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전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의 순서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3단계는 대인관계의 조화와 타인의 인정, 4단계는 법과 질서 및 사회질서의 유지, 5단계는 사회계약과 개인의 권리, 6단계는 보편적 윤리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이론상 단계는 순차적으로 발달하고 원칙적으로 퇴행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퇴행이나 상황에 따른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이 모두 틀리다. ㉠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콜버그는 도덕발달을 인지적 추론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높은 추론능력이 곧 높은 도덕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 '4단계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편적 윤리원칙을 인정한다'는 표현도 잘못되었다. 4단계의 핵심은 법과 질서 및 사회질서의 유지이고, 개인의 권리는 주로 5단계, 보편적 윤리원칙은 6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이다.
② X — ㉢은 옳지만 ㉡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의 조합이 아니다. ㉡은 '4단계에서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 한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이 아니라 ㉢㉣이 옳다.
③ X — ㉣은 옳지만 ㉡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의 조합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와 사회계약은 5단계, 보편적 윤리원칙은 6단계의 핵심이므로 ㉡을 제외하고 ㉢을 포함한 ㉢㉣이 옳다.
④ O — ㉢과 ㉣이 모두 옳다. 대부분의 비범죄자는 인습적 수준인 3단계 또는 4단계에 속한다고 보며, 도덕발달이 언제나 일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가정에는 실제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은 4단계에 5단계의 개인 권리와 6단계의 보편적 윤리원칙을 섞어 놓았다. 또한 ㉠은 추론능력과 도덕수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상관관계가 없다'로 과장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3단계는 타인의 인정, 4단계는 법과 질서, 5단계는 사회계약과 권리, 6단계는 보편적 윤리원칙으로 연결한다. 콜버그의 원래 이론이 가정한 순차적·비퇴행적 발달과 그 가정에 대한 현실적 비판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3 인정, 4 법질서, 5 계약·권리, 6 보편원칙이다. 비범죄자는 주로 3·4단계이고, 단계의 비퇴행성에는 비판이 있다.

NoteBase

문 6.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동은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② 친밀한 사적 집단을 통한 범죄행동 학습의 효과는 미디어를 통한 범죄행동 학습의 효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③ 범죄행동의 학습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범행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에 대한 학습을 포함한다.

④ 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이 제시하는 범죄행동의 학습 경로·내용과 차별접촉의 양태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차별접촉이론은 범죄행동도 다른 행동처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되며, 법 위반에 유리한 정의가 불리한 정의보다 우세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적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범행 기술뿐 아니라 동기·충동·합리화·태도까지 포함한다. 차별접촉의 영향은 빈도·기간·우선성·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범죄행동은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비범죄행동도 같은 욕구와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범죄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친밀한 사적 집단을 통한 학습의 효과가 미디어를 통한 학습의 효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범죄행동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적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며, 미디어와 같은 비인격적 전달수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O — 범죄행동의 학습에는 범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범행동기·충동·합리화·태도의 구체적 방향을 배우는 과정이 포함된다.
④ O — 차별접촉은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인 빈도,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인 기간, 생애에서 얼마나 이르게 형성되는지인 우선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친밀한지인 강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는 범죄학습의 핵심 경로인 '친밀한 사적 집단'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미디어'를 서로 뒤집었다. 미디어가 범죄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차별접촉이론의 공식 명제를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덜랜드의 명제는 '범죄도 학습된다 → 주된 학습 장소는 친밀한 사적 집단이다 → 기술과 태도를 함께 배운다 → 접촉은 빈도·기간·우선성·강도로 달라진다'는 연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차별접촉은 친밀한 집단에서 기술과 정의를 학습하며, 접촉의 힘은 빈도·기간·우선성·강도로 결정된다.

NoteBase

문 7. 머튼(Merton)의 긴장이론 적응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응 방식	문화적 목표	제도화된 수단
㉠	+	+
㉡	+	−
㉢	−	+
㉣	−	−
㉤	±	±

① ㉠은 안정된 사회 구성원의 가장 보편적인 적응 방식으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전면적으로 모두 수용할 때 나타난다.

② ㉡은 수단과 기회가 제한된 이욕적 범죄자나 하위계층의 범죄를 가장 잘 반영한다.

③ ㉢은 무사안일하게 주어진 규범·규칙만을 준수하려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에게서 발견되며, 성공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사회의 도덕적 의무와 관습을 강하게 사회화한다.

④ ㉣은 도피형(retreatism)으로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승인된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은 혁신형(innovation)으로 기존 사회를 다른 사회질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머튼의 긴장이론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수용·거부 조합에 따라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동조형: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수용한다.
㉡ 혁신형: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고 비제도적 수단을 사용한다.
㉢ 의례형: 문화적 목표는 포기하거나 낮추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계속 준수한다.
㉣ 도피형: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한다.
㉤ 반역형: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하려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동조형이다. 안정된 사회 구성원이 사회가 제시한 성공 목표와 합법적·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가장 보편적인 적응 방식이다.
② O. ㉡은 혁신형이다.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합법적 기회가 제한되면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하고 범죄 같은 비제도적 수단을 택할 수 있으므로 이욕적 범죄나 하위계층 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 O. ㉢은 의례형이다. 성공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그 목표를 포기하면서도 강하게 내면화한 규범과 절차는 계속 준수하므로, 규칙 준수 자체에 매달리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모습과 연결된다.
④ X. ㉣을 도피형으로 설명한 부분은 옳지만, ㉤을 혁신형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기존 사회의 목표와 수단을 새로운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하려는 유형은 반역형이다. 혁신형은 기존의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면서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하는 유형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앞부분의 도피형 설명을 옳게 제시한 뒤, 새로운 사회질서로의 대체를 혁신형이라고 바꾸어 놓았다. 일상어의 '혁신'과 이론상 혁신형을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수용 여부를 각각 확인한다. 목표·수단이 모두 수용이면 동조형, 목표만 수용이면 혁신형, 수단만 수용이면 의례형, 둘 다 거부하면 도피형, 기존 목표와 수단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 하면 반역형이다.

암기 포인트

둘 다 수용은 동조, 목표만 수용은 혁신, 수단만 수용은 의례, 둘 다 거부는 도피, 새것으로 대체는 반역이다.

NoteBase

문 8. 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이(Nye)는 청소년비행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통제의 부족을 지목하면서 청소년 스스로 양심이나 죄의식 때문에 비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간접통제' 또는 '동일화에 의한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② 학교 등 교육기관에 의한 청소년비행 통제는 라이스(Reiss)의 사회통제력과 레클리스(Reckless)의 외적 통제에 각각 해당할 수 있다.

③ 레클리스의 봉쇄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의식, 책임감 등 내적 통제요인이 강한 경우 비행이나 범죄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④ 부모, 교사, 친구 등과 형성된 강한 애착은 비행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통제이론의 주요 학자와 통제 유형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특히 나이의 내면화된 통제와 간접통제를 구별해야 한다.

핵심 정리

나이(Nye): 비행은 사회통제가 약해질 때 발생하며, 직접통제·내면화된 통제·간접통제·욕구 충족을 위한 합법적 수단을 구분한다. 양심과 죄의식은 내면화된 통제이고, 부모 등 중요한 타인과의 정서적 동일시를 통한 억제는 간접통제이다.
라이스(Reiss): 개인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패로 비행을 설명하며, 학교 같은 교육기관의 통제는 사회적 통제에 해당한다.
레클리스(Reckless): 내적 봉쇄와 외적 봉쇄가 범죄 압력과 유인으로부터 개인을 막는다고 본다.
자기통제력·긍정적 자아개념·책임감은 내적 봉쇄에 해당한다.
허쉬(Hirschi): 애착·전념·참여·신념이라는 사회유대가 강할수록 비행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양심이나 죄의식 때문에 스스로 비행을 자제하는 것은 나이의 '내면화된 통제'이다. 틀린 표현은 '간접통제 또는 동일화에 의한 통제'이며, 올바르게는 '내면화된 통제'이다. 간접통제는 부모 등 중요한 타인과의 정서적 동일시와 그들의 실망에 대한 우려를 통해 비행을 억제하는 통제이다.
② O — 라이스의 사회적 통제에는 가족·학교 등 사회집단이나 제도의 통제가 포함되고, 레클리스의 외적 봉쇄에도 가족·학교·규범과 같은 외부의 억제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의한 통제는 두 개념에 각각 해당할 수 있다.
③ O — 레클리스의 내적 봉쇄에는 자기통제력, 긍정적 자아개념, 책임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적 통제요인이 강하면 범죄의 압력과 유인을 견디며 비행이 억제될 수 있다.
④ O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부모·교사·친구 같은 중요한 타인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억제하는 핵심 유대이다. 강한 애착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 비용을 크게 만들어 비행 가능성을 낮춘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은 '양심·죄의식'과 '동일화'라는 관련 용어를 한 문장에 섞었다. 양심과 죄의식은 내면화된 통제이고, 중요한 타인과의 정서적 동일시는 간접통제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제의 작동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기 안의 양심·죄의식이면 내면화된 통제, 중요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이면 간접통제, 학교·가족·규범 같은 외부 장치이면 사회적 통제 또는 외적 봉쇄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나이: 양심은 내면화, 동일시는 간접. 레클리스: 자기통제는 내적 봉쇄, 학교는 외적 봉쇄. 허쉬: 애착은 사회유대이다.

NoteBase

문 9.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베커(Becker)는 최초의 일탈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이후의 일탈을 촉발하는 새로운 환경을 낳고, 이것이 다음 단계 일탈의 원인이 되는 동시적 모델을 주장하였다.

② 레머트(Lemert)는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의 부작용으로 이차적 일탈이 생성되며,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오히려 일탈적 행위와 생활유형을 양산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는 범죄자에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낙인을 부여하면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낙인이론은 일탈의 주요 원인을 일탈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둠으로써 일탈자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낙인이론의 주요 학자인 베커, 레머트, 브레이스웨이트와 각 학자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베커: 순차적 모델 — 일탈 경력이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되며, 앞 단계의 경험이 다음 단계가 나타날 조건을 만든다고 본다.
레머트: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통제가 개인의 일탈자 정체성을 강화하여 이차적 일탈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브레이스웨이트: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 행위는 비난하되 행위자를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은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며, 행위자 자체를 배척하는 낙인은 범죄를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 최초의 일탈과 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이후 단계의 일탈 조건을 만든다는 설명은 베커의 순차적 모델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동시적 모델'이며, 올바르게는 '순차적 모델'이다.
② O — 레머트는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와 부정적 반응이 일탈자라는 자기정체성을 강화하여 이차적 일탈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통제가 오히려 일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O — 브레이스웨이트는 행위자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낙인, 즉 낙인적 수치심 부여가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행위는 비난하되 행위자를 다시 수용하는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와 구별된다.
④ O — 낙인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행위자의 타고난 특성보다 사회적 반응과 낙인 과정에서 찾는다. 그 결과 개인의 생물학적·심리적 특성이나 최초 일탈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은 앞 단계의 낙인이 다음 단계의 일탈 조건을 만든다는 내용 자체는 맞게 제시한 뒤, 모형의 명칭만 '동시적'으로 바꾸었다. 단계가 연속해서 전개된다는 표현은 '순차적'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와 대표 연결어를 먼저 대응한다. 베커는 순차적 일탈 경력, 레머트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브레이스웨이트는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와 낙인적 수치심 부여의 구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베커=순차적 모델, 레머트=일차·이차 일탈, 브레이스웨이트=재통합적 수치심 부여이다.

NoteBase

문 10.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과 자기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회유대이론은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뒤르껭(Durkheim)의 사상을 반영한다.
㉡ 사회유대이론은 사소한 비행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강력범죄의 경우 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약한 자기통제력의 근본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다.
㉣ 약한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는 자기통제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가 범죄 유발 근본 원인이라던 종전의 사회유대이론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허쉬의 사회유대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이 범죄의 원인을 각각 사회유대의 약화와 낮은 자기통제력에서 찾는다는 점, 그리고 두 이론의 전제·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유대이론은 개인과 사회를 잇는 애착·전념·참여·신념의 유대가 약해질 때 비행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자기통제이론은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와 유사행동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즉 사회유대이론은 현재의 사회적 결속에, 자기통제이론은 비교적 안정된 개인의 자기통제력에 초점을 둔다.

NoteBase

제시문 판단

㉠ O: 사회유대이론은 인간에게 규범을 위반하려는 욕구가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억제하는 사회적 유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이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므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뒤르껭의 관점을 반영한다.
㉡ O: 사회유대이론을 뒷받침한 경험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비교적 사소한 비행에 집중했으므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설명력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O: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고 비행을 인식하여 적절히 제재하는 양육을 하지 못하면 낮은 자기통제력이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다.
㉣ O: 자기통제이론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여, 사회유대의 약화를 범죄 원인으로 보았던 종전 사회유대이론과 이론적 강조점이 달라졌다. 이 때문에 허쉬가 자신의 이전 설명을 사실상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 ㉡, ㉢, ㉣의 4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설명이 '1개'라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옳은 설명이 4개이다.
② X: 옳은 설명이 '2개'라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옳은 설명이 4개이다.
③ X: 옳은 설명이 '3개'라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옳은 설명이 4개이다.
④ O: ㉠부터 ㉣까지 모두 옳으므로 옳은 설명은 4개이다.

오답 포인트

㉣에서 두 이론이 모두 허쉬의 이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완전히 일관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사회유대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를, 자기통제이론은 어린 시절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을 핵심 원인으로 삼으므로, 후기 이론이 종전 이론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유대이론은 '개인과 사회를 묶는 유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하고, 자기통제이론은 '어린 시절 양육으로 자기통제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개수형 문항에서는 각 진술을 독립적으로 O/X 판단한 뒤 O의 수를 선택지와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유대이론은 유대의 약화, 자기통제이론은 양육에서 비롯된 낮은 자기통제력이다.

NoteBase

문 11. 퀴니(Quinney)의 경제계급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는 자본주의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유발된다.

② '저항(대항)범죄'는 자본주의에 의해 곤경에 빠진 노동자 계급이 저지르는 살인·강도를 말한다.

③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는 '지배와 억압의 범죄'에 해당한다.

④ 형사사법기관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통제범죄'에 해당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퀴니의 경제계급론이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지배계급의 '지배와 억압의 범죄'와 피지배계급의 '순응과 저항의 범죄'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퀴니는 자본주의의 계급관계와 모순이 범죄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본다.
지배와 억압의 범죄에는 통제범죄, 정부범죄, 경제적 지배범죄가 포함되며, 자본가 계급과 국가기관이 기존 질서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순응과 저항의 범죄에는 생존이나 박탈에 적응하는 약탈범죄·개인범죄와,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질서에 직접 대항하는 저항범죄가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퀴니는 범죄를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과 억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노동자 계급의 살인·강도를 '저항(대항)범죄'라고 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박탈과 곤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살인·강도는 순응범죄 범주의 개인범죄 또는 약탈범죄에 해당한다. 저항범죄는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가 자본가 계급과 자본주의 질서에 직접 대항하여 저지르는 공장 설비 파괴·사보타주 같은 행위이다.
③ O — 자본가 계급이 자본축적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르는 행위는 지배와 억압의 범죄에 속하며, 그중 기업범죄 등은 경제적 지배범죄로 분류된다.
④ O —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지배계급에는 관대하고 노동자 계급에는 가혹하게 법을 집행하는 행위는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통제범죄에 해당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는 노동자 계급이 저지른 범죄라는 공통점만으로 순응범죄와 저항범죄를 바꾸어 놓았다. 행위자의 계급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의 목적이 생존·적응인지, 계급의식에 따른 체제 대항인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가·국가기관이 지배질서를 유지하면 '지배와 억압', 노동자가 박탈에 적응하여 생계형·개인 범죄를 저지르면 '순응', 노동자가 정치적·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자본주의에 직접 대항하면 '저항'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배계급은 지배·억압, 생존을 위한 노동자 범죄는 순응, 체제에 맞서는 노동자 범죄는 저항이다.

NoteBase

문 12. 발달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발달범죄학은 인생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 등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탐구한다.

② 지오다노 등(Giordano et al.)은 범죄중단을 위해서는 변화의 수용, 긍정적 상황의 인식, 대체자아의 구체화, 범죄와 무관한 삶 등 네 가지 인지적 전환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패터슨 등(Patterson et al.)은 비행청소년이 되어가는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조기 개시형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④ 모핏(Moffitt)은 아동기까지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비행 친구에게 노출되어 일시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일탈만을 저지른 청소년은 생애(인생)지속형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발달범죄학의 연구 범위와 지오다노, 패터슨, 모핏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발달범죄학: 생애 과정에서 범죄가 언제 시작되고 지속되며 중단되는지를 종단적으로 연구한다.
지오다노 등: 범죄중단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 변화의 계기가 될 긍정적 상황의 인식, 범죄자를 대신할 새로운 자아의 구체화, 범죄적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인지적 전환과 관련된다.
패터슨 등: 조기에 비행을 시작하는 경로는 문제행동이 누적되어 성인기의 만성적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모핏: 반사회적 행동을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하는 생애지속형과 주로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청소년기한정형을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발달범죄학은 범죄행동의 시작·지속·중단과 그 변화 과정을 생애에 걸쳐 종단적으로 탐구하므로 옳다.
② O. 지오다노 등의 인지적 전환이론은 변화의 수용, 변화의 계기에 대한 인식, 대체자아의 형성, 범죄적 삶에 대한 인식 변화가 범죄중단에 필요하다고 보므로 옳다.
③ O. 패터슨 등의 발달모형에서 조기 개시형은 어린 시기부터 문제행동이 누적되므로 성인기에도 만성적 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④ X. 틀린 표현은 사춘기에 비행 친구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이고 경미한 일탈을 하는 청소년이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청소년은 모핏의 청소년기한정형에 해당하며, 생애지속형은 아동기부터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유형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는 '사춘기부터 시작', '비행 친구의 영향', '일시적이고 경미한 일탈'이라는 청소년기한정형의 특징을 제시한 뒤 결론만 생애지속형으로 바꾸었다. 시작 시기와 지속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핏의 유형은 시작 시기와 지속성으로 판단한다.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면 생애지속형이고, 사춘기에 시작하여 대체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면 청소년기한정형이다.

암기 포인트

모핏: 아동기 시작·장기 지속은 생애지속형, 사춘기 시작·일시적 모방은 청소년기한정형이다.

NoteBase

문 13. 다음에서 설명하는 멀렌(Mullen)의 범행동기에 따른 스토킹 가해자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애인·친구·직장동료 등과의 관계가 끝난 뒤 화해와 복수라는 이중적 감정을 갖고 쫓아다니는 유형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단순집착형 스토커와 유사하다.

① 친밀형
② 거부형
③ 약탈형
④ 무능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멀렌의 스토킹 가해자 유형을 범행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관계가 끝난 뒤 화해와 복수 사이를 오가며 전 연인·친구·직장동료를 쫓는 유형은 거부형이다.

핵심 정리

거부형: 친밀한 관계가 끝난 뒤 관계 회복과 보복이라는 상반된 동기로 스토킹하며, 폭력 위험이 비교적 두드러진다.
친밀형: 피해자와 사랑이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거나 그러한 관계를 이루려 한다.
약탈형: 성적 공격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은밀히 관찰하고 추적한다.
무능형: 사회적·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제 상대를 구하려고 부적절하게 접근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친밀형은 사랑이나 특별한 관계의 성립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틀린 표현은 관계가 끝난 뒤 화해와 복수의 이중적 감정으로 쫓는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거부형의 특징이다.
② O — 거부형은 애인·친구·직장동료 등과의 관계가 끝난 뒤 화해 또는 복수를 목적으로 상대를 추적하며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제시문의 단순집착형과 유사하다는 단서도 거부형에 부합한다.
③ X — 약탈형은 성적 공격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관찰하고 추적하는 유형이다. 틀린 표현은 관계 종료 후 화해와 복수를 추구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성적 공격을 준비하는 동기가 핵심이다.
④ X — 무능형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교제 상대에게 부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유형이다. 틀린 표현은 과거 관계의 종료와 복수 동기이며, 올바르게는 서툰 구애와 관계 형성 욕구가 핵심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제시문에 관계 회복을 바라는 감정이 있어 친밀형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던 관계가 끝났고 화해와 복수가 함께 나타난다는 표현은 거부형을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전 관계가 있었는지를 본다. 이전 관계의 단절 뒤 화해·재결합과 보복이 함께 제시되면 거부형, 사랑 관계의 성립 자체를 추구하면 친밀형, 성적 공격을 준비하면 약탈형, 서툰 구애가 중심이면 무능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계 종료 뒤 재결합과 보복의 양면성은 거부형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A약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석: 요즘 마약범죄가 심각해져서 큰일이야.
도준: 그러게. 무색, 무취인 ‘A약물’은 유럽 등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고, 우리나라 클럽에서도 성범죄에 악용한대.
윤주: 아! 그 ‘A약물’ 말이지? 음료수나 술에 섞어 마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24시간 이내에 몸에서 빠져나가 추적이 어렵대.

① GHB
② LSD
③ 메스칼린
④ 크랙 코카인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GHB와 환각제·각성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HB는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로, 무색·무취이며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의식과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이다. LSD와 메스칼린은 대표적인 환각제이고, 크랙 코카인은 강한 각성 작용을 하는 코카인의 흡연 형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GHB는 무색·무취이고 음료나 술에 섞여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체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사라져 검출이 어렵다는 제시문의 특징에 부합한다.
② X — LSD는 지각과 감각을 왜곡하는 환각제로, 제시문의 ‘데이트 강간 약물’ A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약물명 ‘LSD’는 ‘GHB’로 고쳐야 한다.
③ X — 메스칼린은 선인장류에서 유래한 환각 성분으로, 제시문의 A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약물명 ‘메스칼린’은 ‘GHB’로 고쳐야 한다.
④ X — 크랙 코카인은 코카인을 흡연할 수 있게 만든 형태의 강력한 각성제로, 제시문의 A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약물명 ‘크랙 코카인’은 ‘GHB’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불법적으로 남용되는 약물이므로 단순히 '마약류'라는 공통점만 보면 구별하기 어렵다. 제시문의 핵심 단서는 '무색·무취', '음료나 술에 혼합', '성범죄 악용', '빠른 체외 배출과 검출 곤란'이며, 이 조합은 GHB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약물의 별칭이나 악용 방식이 제시되면 약물의 작용 분류보다 식별 단서를 먼저 묶어 판단한다. '데이트 강간 약물'과 '음료에 혼합되어 검출이 어렵다'가 함께 나오면 GHB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GHB는 무색·무취, 음료 혼합, 성범죄 악용, 빠른 체외 배출이라는 단서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5. 다음의 내용이 공통으로 해당하는 클락(Clarke)과 코니쉬(Cornish)의 상황적 범죄예방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규칙의 명확화 ◯ 약물·알콜 통제 ◯ 지침의 게시
◯ 양심에 호소 ◯ 준법행동 보조

① 노력의 증가
② 위험의 증가
③ 보상의 감소
④ 변명의 제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클락과 코니쉬의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 가운데 규칙을 분명히 하고 준법을 돕는 방법이 어떤 목표에 속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가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과 기회를 바꾸어 범행을 어렵게 만드는 접근이다. 주요 목표는 노력의 증가, 위험의 증가, 보상의 감소, 도발의 감소, 변명의 제거로 구분된다.
변명의 제거는 행위자가 규칙을 몰랐거나 지키기 어려웠다는 구실을 대지 못하도록 규칙을 명확히 알리고 준법행동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규칙의 명확화, 지침의 게시, 양심에 호소, 준법행동 보조, 약물·알콜 통제가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노력의 증가는 목표물 강화, 출입 통제 등 범행에 필요한 수고를 늘리는 전략이다. 제시된 기법들의 공통 목표는 노력의 증가가 아니라 변명의 제거이다.

② X
위험의 증가는 감시나 관리 강화를 통해 발각·체포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제시된 기법들의 공통 목표는 위험의 증가가 아니라 변명의 제거이다.

③ X
보상의 감소는 범죄 대상물을 숨기거나 제거하고 범죄수익의 이용을 막는 전략이다. 제시된 기법들의 공통 목표는 보상의 감소가 아니라 변명의 제거이다.

④ O
규칙의 명확화, 지침의 게시, 양심에 호소, 준법행동 보조, 약물·알콜 통제는 모두 규칙 위반의 구실을 차단하는 변명의 제거 기법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약물·알콜 통제를 범행 위험이나 도발의 감소와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이 분류에서는 판단능력을 흐리는 물질을 통제하여 규칙 위반의 구실을 차단하는 기법이므로, 규칙의 명확화·지침의 게시·양심에 호소·준법행동 보조와 함께 변명의 제거에 속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칙을 알리고, 양심을 일깨우고, 규칙 준수를 쉽게 해 주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 변명의 제거로 판단한다.
감시·발각 가능성은 위험의 증가, 물리적 난이도는 노력의 증가, 범죄이익 차단은 보상의 감소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규칙·지침·양심·준법 보조·약물 통제 = 변명의 제거이다.

NoteBase

문 16. 범죄두려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주민들 사이의 상호신뢰, 유대, 결속은 범죄두려움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수준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평균적인 범죄두려움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깨진 유리창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통제모형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행위는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범죄피해모형에 따르면 직·간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은 범죄두려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사회통제모형·취약성모형·무질서모형·범죄피해모형의 핵심 요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통제모형은 경찰 등 공식적 통제에 대한 신뢰와 지역주민의 유대·집합효율성 같은 비공식적 통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취약성모형은 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하여 범죄에 대처하거나 피해에서 회복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범죄두려움이 커진다고 본다.
무질서모형은 낙서·쓰레기 같은 물리적 무질서와 소란·공공장소 음주 같은 사회적 무질서가 통제 약화와 위험의 신호로 인식되어 범죄두려움을 높인다고 본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연결되는 모형이다.
범죄피해모형은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주변인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범죄위험 인식과 두려움을 높인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역주민 사이의 신뢰·유대·결속은 상호 감시와 개입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높이므로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 이는 비공식적 사회통제 또는 사회통합의 설명과 부합한다.
② O — 취약성모형에 따르면 신체적·사회적 약자는 범죄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쉬우므로 일반적인 지역주민보다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회통제모형'이다. 무질서한 환경과 행위가 통제 약화의 신호가 되어 범죄두려움을 높인다는 설명은 깨진 유리창 이론과 연결되는 '무질서모형'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바탕을 둔 무질서모형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행위는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다.
④ O — 범죄피해모형은 본인의 직접 피해뿐 아니라 주변인의 피해를 접하는 간접 피해도 범죄 가능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하여 범죄두려움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맞지만 이를 사회통제모형이라고 부른 부분이 틀렸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통제의 약화도 언급한다는 이유로 모형 명칭을 사회통제모형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원인을 기준으로 모형을 판별한다. 피해 경험은 범죄피해모형, 개인의 방어·회복 능력은 취약성모형,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는 무질서모형, 경찰 신뢰나 주민 유대·집합효율성은 사회통제모형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피해는 피해모형, 약자는 취약성모형, 깨진 유리창은 무질서모형, 경찰·주민의 통제력은 사회통제모형이다.

NoteBase

문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톤리(Tonry)와 파링턴(Farrington)의 범죄예방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하여 범죄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범죄가능성을 차단한다.

① 발달적 예방모형
② 상황적 예방모형
③ 사회적 예방모형
④ 법집행 예방모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톤리와 파링턴의 범죄예방모형을 개입 대상과 시점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아동기·청소년기에 조기 개입하여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발달적 예방모형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발달적 예방모형: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조기에 개입하여 장래의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
상황적 예방모형: 범행 기회를 줄이고 범행의 노력과 위험을 높이는 등 범죄가 발생하는 즉각적인 상황을 바꾼다.
사회적 예방모형: 지역사회와 사회제도 등 범죄를 낳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한다.
법집행 예방모형: 경찰·법원·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하고 위험요인을 줄이며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발달적 예방모형의 핵심이다.
② X — 상황적 예방모형은 발달단계의 위험요인에 조기 개입하는 모형이 아니다. 틀린 연결은 '아동기·청소년기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조기 개입'이며, 올바르게는 범행 기회를 줄이고 범행의 노력과 위험을 높이는 등 즉각적인 범죄 상황을 변화시키는 모형이다.
③ X — 사회적 예방모형은 개인의 발달과정에 조기 개입하는 모형이 아니다. 틀린 연결은 '개인의 아동기·청소년기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개입'이며, 올바르게는 지역사회 조직과 사회제도 등 범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모형이다.
④ X — 법집행 예방모형은 성장기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조작하는 모형이 아니다. 틀린 연결은 '아동기·청소년기에 대한 발달적 조기 개입'이며, 올바르게는 경찰·법원·교정기관의 법집행과 형사사법 활동을 통해 범죄 억제와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모형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범죄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결과만 보면 모든 예방모형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적 표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조기 개입’,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며, 이는 발달과정에 개입하는 발달적 예방모형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입 대상을 먼저 찾는다. 성장단계의 개인과 위험·보호요인이면 발달적 예방, 범행 현장의 기회이면 상황적 예방, 지역사회와 사회구조이면 사회적 예방, 경찰·법원·교정기관이면 법집행 예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성장기 위험·보호요인에 조기 개입 = 발달적 예방모형이다.

NoteBase

문 18.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방어적 환경 디자인으로 범죄 발생 기회와 범죄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범죄예방전략이다.

② 골드스타인(Goldstein)이 제안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이 사건 하나하나에 개별적·산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③ 에크(Eck)와 스펠만(Spelman)의 SARA모델 중 조사·탐색단계(scanning)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된 문제의 원인, 범위, 효과 등을 파악한다.

④ 그룹워크(group work)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여 교육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범죄예방기법을 말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범죄예방의 주요 전략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SARA 단계별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문제를 발견·선정하는 조사·탐색 단계와 원인·범위·효과를 파악하는 분석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CPTED는 건축·도시환경을 설계하고 관리하여 범죄 기회와 범죄두려움을 줄이는 전략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개별 사건에 반복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경찰활동이다.
SARA는 조사·탐색(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평가(Assessment)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탐색은 반복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선정하는 단계이고, 분석은 선정된 문제의 원인·범위·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이다.
그룹워크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집단 단위로 분류하여 교육·치료하고 친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CPTED는 적절한 건축설계와 도시계획 등 방어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와 범죄두려움을 줄이는 범죄예방전략이다.
② O. 골드스타인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사건별 사후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지역사회 문제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조사·탐색단계에서 문제의 원인, 범위, 효과 등을 파악한다'는 부분이다. 원인·범위·효과의 파악은 분석단계(Analysis)의 기능이고, 조사·탐색단계(Scanning)는 지역사회에서 반복되거나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선정하는 단계이다.
④ O. 그룹워크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대상자를 집단 단위로 분류하여 교육하거나 치료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조사·탐색단계에서도 정보를 살펴본다는 점을 이용해 분석단계의 기능을 섞어 놓았다. '문제의 발견·선정'은 Scanning이고, '원인·범위·효과의 심층 파악'은 Analysis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SARA 문항에서는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를 찾고 고르는 것은 Scanning,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Analysis, 해결책을 시행하는 것은 Response, 성과를 검토하는 것은 Assessment이다.

암기 포인트

SARA는 문제 발견(Scanning) → 원인 분석(Analysis) → 대책 실행(Response) → 효과 평가(Assessment)이다.

NoteBase

문 19.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크(Eck)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의 부재라는 3요소에 통제인을 추가하여 네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한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②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적절한 대상의 특징을 가시성, 접근성 등이 포함된 CRAVED 모델을 통해 설명하였다.

③ 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의 범죄패턴이론에 기초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일상 이동경로, 이동수단의 분석과 다음 범행지역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쇄 범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중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선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범죄예방 이론의 학자와 핵심 모델을 정확히 연결하고, 일상활동이론의 VIVA 모델과 상황적 범죄예방론의 CRAVED 모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에크(Eck): 일상활동이론의 구성요소에 통제인의 역할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통제인은 범죄자·대상·장소를 각각 통제하는 조력자(handler)·보호자(guardian)·관리자(manager)로 구체화된다.
코헨(Cohen)과 펠슨(Felson): 일상활동이론에서 적절한 대상의 속성을 가치성·관성·가시성·접근성의 VIVA로 설명한다.
클라크(Clarke): 절도 표적이 되기 쉬운 재화의 특성을 은닉성·이동성·접근 가능성·가치성·쾌락성·처분 가능성의 CRAVED로 정리한다.
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 범죄패턴이론에서 생활의 거점과 이동경로가 형성하는 인식공간을 통해 범죄 장소의 분포를 설명한다.
제프리(Jeffery): 사회복귀모델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화된 처우를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에크는 일상활동이론의 핵심 요소에 통제인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통제인은 범죄자·대상·장소에 개입하여 범죄 기회를 억제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CRAVED 모델’이다. 가시성과 접근성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코헨과 펠슨의 모델은 VIVA이다. CRAVED는 클라크가 절도범에게 매력적인 재화의 특성을 정리한 모델이다.
③ O —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자의 일상적 거점, 이동경로, 이동수단과 인식공간을 분석한다. 이러한 공간적 규칙성은 연쇄범죄자의 활동 근거지나 다음 범행 가능 지역을 추정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활용될 수 있다.
④ O — 제프리의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며, 범죄자의 생물학적·심리학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를 중시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는 가시성·접근성이라는 VIVA의 실제 구성요소를 제시한 뒤 모델명만 CRAVED로 바꾸었다. 두 모델에 가치성과 접근 관련 요소가 함께 등장한다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시성·접근성으로 ‘적절한 대상’을 설명하면 VIVA, 은닉·이동·처분이 쉬운 ‘매력적인 재화’를 설명하면 CRAVED로 판단한다. 학자까지 함께 묻는 경우 코헨·펠슨은 VIVA, 클라크는 CRAVED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코헨·펠슨 = VIVA, 클라크 = CRAVED, 브랜팅햄 = 범죄패턴과 인식공간, 제프리 = 사회복귀와 개별 처우이다.

NoteBase

문 20. 다음의 사례와 레페토(Reppetto)의 범죄 전이 유형의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형	사례
㉠	전국구 폭력조직인 甲파는 과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렸으나, 최근 해외 마약범죄조직인 乙파와 손을 잡고 마약밀거래로 그 범죄유형을 변경하였다.
㉡	전과 5범 丙은 초등학생을 납치하기 위해 범행 시간대를 오후 7시에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로 변경하였다.

① ㉠ 전술적 전이 - ㉡ 시간적 전이

② ㉠ 공간적 전이 - ㉡ 전술적 전이

③ ㉠ 기능적 전이 - ㉡ 시간적 전이

④ ㉠ 목표물 전이 - ㉡ 전술적 전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범죄예방 조치 이후 범죄가 다른 형태로 옮겨 가는 범죄 전이의 유형을 사례에 맞게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적 전이는 범죄자가 종전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바꾸는 현상이다. 시간적 전이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시간대를 바꾸는 현상이다. 공간적 전이는 범행 장소를 바꾸고, 목표물 전이는 공격 대상을 바꾸며, 전술적 전이는 범행 수법이나 방법을 바꾸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을 전술적 전이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甲은 도박에서 마약 밀거래로 범죄의 종류를 바꾸었으므로 ㉠은 기능적 전이이다. ㉡을 시간적 전이로 연결한 부분은 맞다.

② X - ㉠은 범행 장소를 옮긴 공간적 전이가 아니라 범죄 종류를 바꾼 기능적 전이이고, ㉡은 범행 수법을 바꾼 전술적 전이가 아니라 범행 시간대를 바꾼 시간적 전이이다.

③ O - 甲은 불법 도박에서 마약 밀거래로 범죄 유형을 변경했으므로 ㉠은 기능적 전이이다. 丙은 범행 시간대를 오후 7시에서 오후 1시로 변경했으므로 ㉡은 시간적 전이이다.

④ X - ㉠은 범행 대상을 바꾼 목표물 전이가 아니라 범죄 종류를 바꾼 기능적 전이이고, ㉡은 범행 수법을 바꾼 전술적 전이가 아니라 범행 시간대를 바꾼 시간적 전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손을 잡고'라는 표현 때문에 전술이 바뀌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결정적 변화는 공범 여부가 아니라 도박에서 마약 밀거래로 범죄 종류가 바뀐 점이다. ㉡은 범행 대상인 초등학생이 그대로이고 시간대만 바뀌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찾는다. 범죄 종류가 달라지면 기능적 전이, 시간이 달라지면 시간적 전이, 장소가 달라지면 공간적 전이, 대상이 달라지면 목표물 전이, 수법이 달라지면 전술적 전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종류는 기능, 시간은 시간, 장소는 공간, 대상은 목표물, 수법은 전술이다.

NoteBase